

현재 중국에는 19개의 카메라 공장이 있다. 이들의 '90년도 전체 생산량은 189만9천대로 '89년보다 26.3% 줄어 들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 생산액은 더욱 줄었는데 人民幣 3억2천만 元(6천만弗)으로 '89년보다 33%가 줄어 든 셈이다.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우울한 수치의 뒤에는 부족한 자금, 떨어지는 이윤, 재고 누적 등으로 인한 기업손실, 생산중단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내재해 있다.

이처럼 재고에 눌러 휘청대는 카메라 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즉 중국 카메라가 국내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국 35개 대형 백화점 및 판매점의 판매실적을 보면 '89년의 판매량이 51만대로 '88년보다 19.4%가 떨어졌으며, '90년 1~8월까지의 판매량은 9만9,600만대로 '89년 같은 기간보다 15.1%가 줄어들었다. 카메라 판매상점들은 한결같이 장사가 어렵다고 말하며 매입량을 삭감시켰다.

## 중국, 카메라산업 진퇴양난

—재고누적·생산감소·저품질·고가격 등이 문제—

실제로 중국내 중요한 카메라 공장의 하나인 靑島카메라공장은 25만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89년에 14만 1천대 밖에 생산하지 않았고, 이 생산량 중 겨우 10만대만 팔려 나가 작년 6월말 까지 재고가 5만9천대나 누적되어 그야말로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도달하고 말았다.

또 중국내 카메라 공장중 가장 효율이 높은 上海카메라공장에 '90년도에 목표의 60%만을 생산했고 이윤은 '89년보다 75%나 삭감되었다.

따라서 '90년도 전국 카메라 상점들이 매입한 카메라 수량은 '88년의 60%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전국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채 진열장에서 잠자고 있는 카메라는 이미 15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카메라 산업계가 온갖 고생을 다하며 발전시켜 온 노력의 대가가 겨우 팔리지 않고 쌓이는 재고란 말인가?” 관련업체의 한숨 서린 한마디가 오늘날 중국 카메라산업의 어려운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

### 판치는 일제(日製)밀수 카메라

이 같은 판매부진 현실은 국가가 소비 기금 및 집단 구매력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대량의 밀수 카메라 유입이 조장되는 등 불경기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밀수 카메라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카메라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다. 품질, 외관 및 성능, 가격은 카메라의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3대 요인인데, 중국 카메라는 이 요인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 등 선진국의 카메라 성능과 외관은 계속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성능에 있어서는 전자셔터, 자동초점, 자동플래시, 필름자동회전, 자동되감기, 날짜기록 등 자동화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으며 조작 역시 간편, 견고해지고 있다. 외관도 플라스틱 몸체, 유선형, 작은 원형 설계, 경량화 등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北京카메라 공장의 長城EF 33모델과 리코(理光XF-30D) 모델을 비교할 때 리코가 자동감기, 날짜기록의 기능만 더 가졌을 뿐 렌즈 감별률, 셔터, 필름감기 등의 내구성 및 주요기능은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리코는 새로운 외형을 채택해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다.

중국 카메라의 구식모델, 짧은 life cycle에 대비하는 신제품 출하부진, 거칠은 촉감, 낮은 기능수준 등은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시장적응력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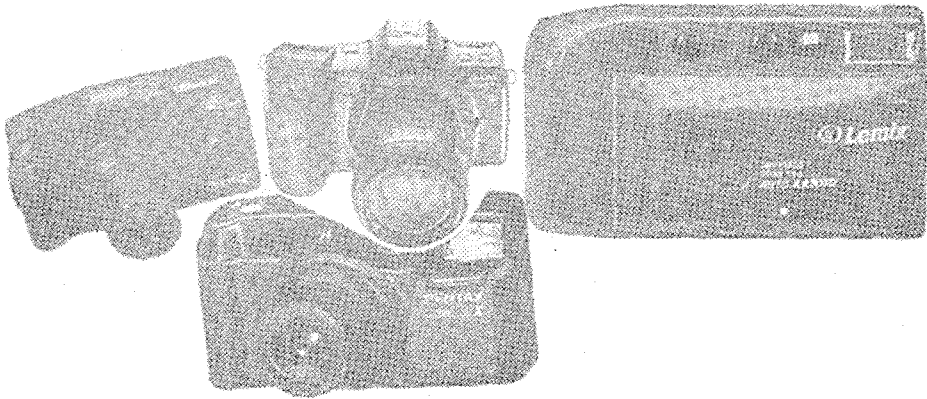
“  
밀수  
카메라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카메라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다.  
품질, 외관 및  
성능, 가격은  
카메라의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3대  
요인인데,  
중국 카메라는  
이 요인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출시키고 있다. 카메라는 몸체, 광선, 전자 등 3개요소가 일체화된 정밀제품으로 품질, 성능, 외관 등은 여러분야의 과학 기술 수준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부품이 부족해 국산 카메라기술의 향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품질에 비해 비싼 중국 카메라

카메라 가격 역시 판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술수준의 제약때문에 국산 카메라라 할지라도 핵심부품은 역시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북경카메라공장이 생산하는 코니카 EF-35모델을 예로 들면 시장가격이 365元(70弗 상당)이나 전자셔터를 갖춘 일제 카메라는 204元(40弗 상당)에 팔리고 있다.

수입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생산비용을 높여 수입카메라와의 경쟁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밀수 카메라가 관세망을 뚫고 대량 유입되어 중국산 카메라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 上海카메라공장에서 생산하는 海區鳥DF-300 모델의 카메라는 외국에서도 “중국의 진정한 미놀타 X-300S”라고 평가받고 있는 고급제품이다. 그러나 이 제품의 중국 시장가격은 1,600元(300弗 상당)인데 반해, 밀수로 유입된 미놀타 X-300S는 1,400元(264弗 상당)에 팔리고 있어 중국 카메라산업을 더욱 궁지로 몰아 넣고 있다.



**신제품 개발 노력**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카메라산업에 대해 관련인사들은 기술 개발, 제품구조 조정, 차세대의 카메라 개발, 해외 최신 Model도입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江西광학기계공장이 최근 고급기종으로 개발한 604D 전자동 카메라는 IC회로와 컴퓨터 제어방식을 채택, 외부광선의 강약에 따라 조리개와 변환속도가 자동 조절, 또 적외선으로 거리를 측정, 필름 감기, 되감기, DX번호 시스템 및 날짜 기록 장치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甘肅광학기계공장과 일본 旭光공업주식회사가 합작한 PG101 계열의 1135 전자동 카메라가 이미 생산에 들어갔다. 北京카메라공장에서 연구 개발한 원터치로 4장을 연속 촬영할 수 있는 TY-1모델의 카메라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일본업체들의 눈에 띄어 금년 상반기에 6만대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카메라는 반드시 시장 적응기라는 단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일 중국제 카메라의 품질, 성능, 외관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기존 카메라상점 진열대에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는 외제 카메라를 밀어 쳐치고 올라 앉으려면 역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해야 한다.

새로운 카메라는 반드시 시장적응기라는 단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일 중국제 카메라의 품질, 성능, 외관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기존 카메라상점 진열대에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는 외제 카메라를 밀어 쳐치고 올라 앉으려면 역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해야 한다.

리잡고 있는 외제 카메라를 밀어 쳐치고 올라 앉으려면 역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해야 한다.

가격경쟁력을 갖추려면 생산원가를 낮추려는 업계노력 이외에도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핵심 카메라 부품의 관세를 낮추고 밀수 카메라의 불법유입을 막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산 카메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인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중국의 카메라 보유대수는 매 100개 가정을 기준으로 할 때 2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100개 가정에 1대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때 연간 중국 카메라시장의 수요량은 300만대를 넘고 있어 중국카메라시장이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세계 카메라시장에서 저급·중급수준으로 자동필름감기 또는 자동초점의 플라스틱류 카메라 수요는 대략 2천여만대로 산출되고 있는데, 중국산 카메라 역시 이 시장을 겨냥한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한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